

2030년까지 소재·부품기업 300개 양성

국비 등 4251억 투입 인력·금융·기술 개발 등 혜택 전남도,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소재·부품 전문화·글로벌화

고작 17곳에 불과했던 전남지역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오는 2030년까지 300개로 늘어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력 분야를 선정, 연구·기술 개발 및 판로 확보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소재·부품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전남도는 7일 전남테크노파크 등과 공동으로 전남지역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 대책 2030'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정부 구상에 발 맞춰 지역 소재·부품 기업들의 전문화·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전남도 전략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장기 소재·부품 발전대책을 마련, 추진하는 것은 전남도가 처음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글로벌 리딩 소재·부품 기술 개발 ▲시장진입 전략 다각화 ▲핵심기술 개발 인력난 해소 ▲발전 환경 제도 마련 등 4가지 전략을 마련하고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 향후 10년간 국비 등 425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TP)를 주축으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금속·화학·세라믹·레이저 등 4개 분야,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이같은 대책에 따라 현재 정부가 인증한 전국 소재·부품 전문기업(4699개)의 0.4%(17개)에 불과한 전남지역 전문기업들을 매년 20개 이상 육성, 향후 10년 내 300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전남도 방침이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정부 인증은 총 매출액 대비 소재·부품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인력·금융, 기술 개발 등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특히 정부의 135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품목과 100대 대일무역적자 품목을 중심으로 361개 지역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43개 품목(연구·개발 38개, 기반구축 5개)을 선별,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는 한편, 시급한 4건의 사업을 우선 진행키로 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확보 사업단을 꾸려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나서고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전남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발전 대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올 대표축제 10개 선정

목포항구·여수거북선 축제 포함

전남도는 남도의 우수한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020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전남 대표축제는 목포항구축제, 여수거북선축제,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 곡성세계장미축제, 화순국화향연, 강진청자축제, 무안연꽃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장성 황룡강노란꽃잔치 등이다.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 운영, 발전 역량, 축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전남도는 지역 대표 축제에 대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로의 육성 및 축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20-2021 문화관광축제에 4개 축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축제는 보성다향대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담양대나무축제다. 2년간 국비를 비롯해 국가 지원을 받는다.

10년간 문화관광축제 자리를 지켰던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강진청자축제는 이를 졸업해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도전하게 된다. 전라남도 이번 선정된 대표축제를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추천할 예정이 다.

윤진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축제를 통해 남도의 청정 관광자원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해 관광 매력도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하고 자생적인 축제 육성을 통해 '블루투어'를 활성화하고, 6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AI-에너지 연계 사업모델 발굴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광주시가 '에너지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섰다.

광주시는 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광주시의회 2명, 한전, 한전KDN 등 산업계 3명,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남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9명,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 학계 8명,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5명, 광주시 1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이용섭 시장과 문승일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광주시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에너지산업 관련 정책사항과 '광주형 에너지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확대, '에너지 전환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

이용섭 시장은 "에너지산업은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며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켜 특화된 경쟁력을 만들고,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맞춤형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에 도전하세요"

광주 31명 포함 전국 1000명 모집

광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에서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줄 이야기할머니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선발 인원은 광주 31명을 포함, 전국 총 1000명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은 여성 어르신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30명으로 시작해 2017년부터 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019년 27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7700여개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0명의 이야기할머니를 전국적으로 선발한다. 매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해달라는 유아교육기관의 수요를 감안해 대규모의 이야기할머니 후보를 선발하게 됐다.

이번 선발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원 가능 연령대를 기존 56-70세에서 상향 조정해 56-74세(1946년 1월1일-1964년 12월31일 출생)까지 여성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야기할머니에 도전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단 홈페이지(www.storymama.kr)에서 선발 공고문을 참고해 2월14일까지 한국국학진흥원에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연 200명대로 줄어

경로당 교육 남도안전학당 운영 교통안전 시설개선비 2배 늘려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40여년만에 처음으로 200명대로 감소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2명으로,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명대로 줄었다. 사망자는 노인 177명, 보행자 90명, 음주 23명, 기타 2명이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022년까지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 시책을 중점 추진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2017년 사망자 수는 387명에 달했으며, 전남도는 오는 2022년에는 185명(52%)까지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교통약자인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남도안전학당을 운

영하고 있다.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길거리 버스킹, 기관단체장 릴레이 캠페인,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지난해 교통단속용 CCTV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 개선 확충사업비를 2배로 늘리고, 시·군·구 중심으로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를 추진했다. 교통안전 시설 개선 확충사업비는 2018년 150억원에서 2019년 302억원, 올해 385억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 확충(고속단속카메라 115개소, 횡단보도 신호등 124개소, 노란 신호등 440개소), 안전속도 5030 구역 확대(17개 군), 횡단보도 안전조명 설치(220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54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오비맥주, 광주시에 장학금 1500만원 기탁

오비맥주가 광주시 빛고을장학금으로 1500만원을 기탁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비맥주 관계자들은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해 이용섭 시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과 지원을 위해 힘써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오비맥주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은 "지역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

이용섭 시장은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핵심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5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